

IT산업경쟁력 가시화



최근 1/4분기 IT산업 GDP가 전년동기 대비 20.0%^p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IT산업은 크게 HW, SW, 정보통신서비스로 구분되며, HW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TV 등, SW는 패키지SW, 임베디드SW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1/4분기 IT산업 GDP는 26.1조원^p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242조원^p)의 10.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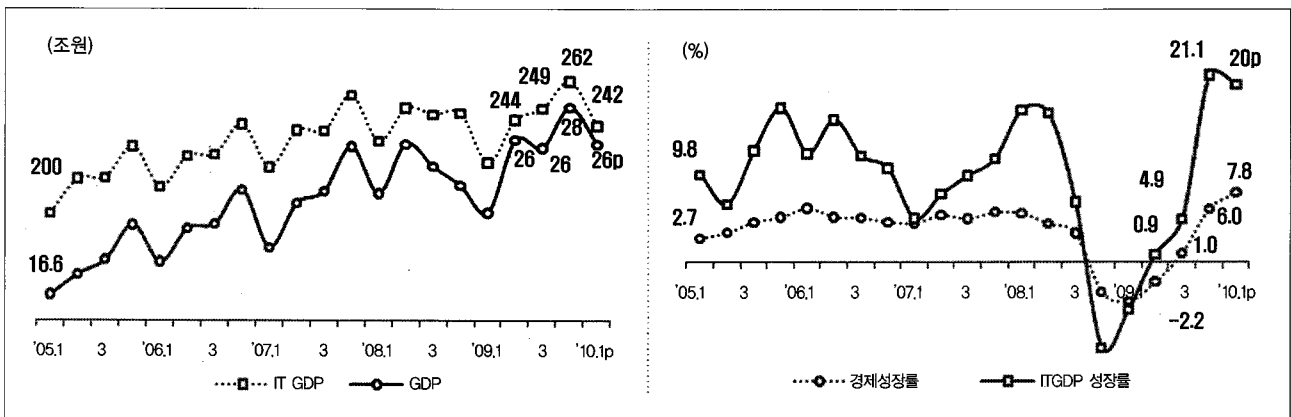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IT산업 GDP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각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IT산업 GDP(4분기, 조원)는 ('07.2Q~'08.1Q) 94.2 → ('09.2Q~'10.1Q) 106.5이다.

1~4월 IT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3.6%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34.8%를 상회하였다. 1~4월 IT산업 수출은 471.3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1,412.3억 달러)의 33.4% 차지하였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3.9% 감소하였지만, IT산업 수출 감소는 △7.8%에 그쳐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지난해 실적은 일본(△23.6%), EU(△20.3%), 대만(△15.9%), 미국(△15.2%), 중국(△11.2%) 등 주요 국가의 수출감소폭을 감안시 양호

【 지난 5년간 분기별 IT산업 GDP 및 성장률(전년동기비) 】



한 실적인 것이다.

1~4월 IT산업 무역수지는 242.2억 달러로 역대 1~4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76.8억 달러)의 3.2배이다.

주요 IT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1/4분기 메모리반도체와 LCD패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47.0%, 47.5%로 세계 1위, 휴대폰은 31.5%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1·2위를 지속 유지하고, LCD패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양강 체제를 유지하며 3위 업체(대만 AUO社)와 큰 격차를 시현하였다. LCD패널매출('10.1Q, 억불)은 (삼성)51.7, (LG)50.3, (AUO)32.9, (CMO)28.3, (Sharp)16.8이다.

휴대폰의 경우도 '07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다.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07.1Q)20.5 → ('08.1Q)24.9 → ('09.1Q)28.0 → ('10.1Q)31.5이다.

다만, 휴대폰의 경우 스마트폰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금년중 삼성전자 40여종, LG전자는 20여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으로, 국내 업계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대폭 강화되고 있고, 금년초 수립한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10.3)」 및 「SW강국 도약전략('10.2)」 등 관련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 강화는 주요 기업의 실적에서도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사상최대 분기 영업이익 4조4,100억원을 기록하였고,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7,470억원을 달성하여 영업이익률 28% 및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LG전자는 분기 매출액 13조7,000억원을 달성하여 1/4분기중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LG디스플레이는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활황은 부품 및 장비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효과를 유발중이다.

지식경제부는 1/4분기 IT산업 실적 호조를 반영하여 금년도 IT산업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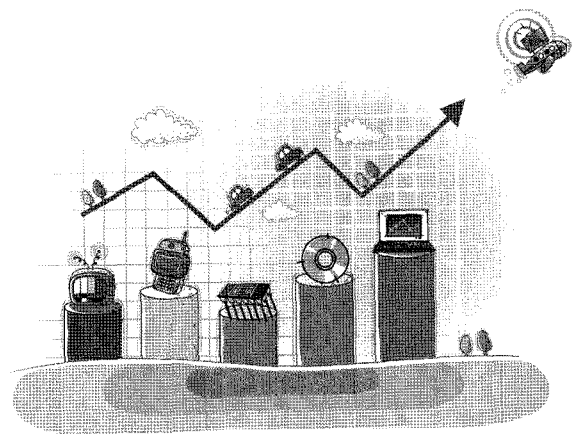
수출 증가율은 당초 10.0%에서 14.0%로 4.0%p 상향 조정하였고, 기기 생산 증가율은 당초 7.7%에서 9.7%로 2.0%p 상향 조정하였다.

최근 IT산업 경쟁력이 향상된 것은 그간 IT관련 정부조직 개편, 시장 위주의 IT정책 추진 등 신정부의 IT정책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08.5), LED산업 발전 전략('08.5), 뉴 IT전략('08.7), IT Korea미래전략('09.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유동성 지원 등이다.

이같이 양호한 IT산업 지표를 감안할 때, EIU의 IT 경쟁력지수 하락('08년 8위 → '09년 16위)은 최근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T경쟁력지수 하락은 '기업환경' 및 'R&D환경' 항목의 순위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환경'은 외국인투자, 창업, 퇴출 등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R&D환경'의 순위 하락은 특허등록건수 자료 출처가 세계특허기구(WIPO)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 변경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 분기별 IT산업 GDP 및 성장률(전년동기비) 】

	'08.1Q	2Q	3Q	4Q	'09.1Q	2Q	3Q	4Q	'10.1Q ^P
GDP(조원)	234	250	247	247	224	244	249	262	242
성장률(%)	5.5	4.4	3.3	Δ3.3	Δ4.3	Δ2.2	1.0	6.0	7.8
IT GDP(조원)	22.9	26.1	24.6	23.4	21.7	26.3	25.8	28.3	26.1
성장률(%)	17.2	16.8	6.8	Δ9.6	Δ5.3	0.9	4.9	21.1	20.0

*전체 특허등록건수중 한국 비중('05)은 (WIPO) 3.48%, (EPO) 0.93%이다. 더욱이, 특허등록건수 산출에 '05년 자료(정통부 시절)가 사용되어 최근의 우리나라 IT경쟁력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최근의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IT산업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스템반도체, 장비·부품,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IT 하드웨어 사업을 고부가가치화할 것이다. SW,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등 취약한 부분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09, %)은 네트워크장비 2.0, 방송장비 1.0이다.

자동차·조선 등 타산업과 IT의 융합을 확산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IT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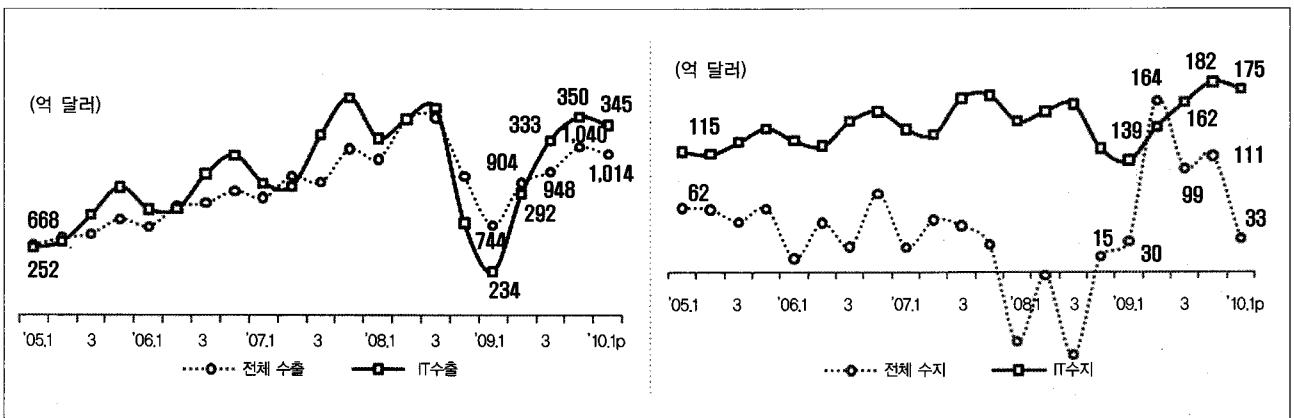
할 것이다.

IT산업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IT산업 GDP의 경우 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 IT산업 GDP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P, 20.0%^P 성장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6.0%^P, 7.8%^P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분기별 IT산업 GDP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각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고, 작년 4/4분기 부터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IT산업 GDP(매분기, 조원)는 ('09.2Q)26.3 → (3Q)25.8 → (4Q)28.3 → ('10.1Q^P)26.1이고, IT산업 GDP(4분기, 조원)는 ('07.2Q~'08.1Q)94.2 → ('09.2Q~'10.1Q^P)106.5이다. 특히, 작년 세계 IT시장은 Δ4.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산업

【 지난 5년간 분기별 IT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분기별) 】



GDP는 +5.3%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양호한 실적인 것이다.

IT산업 수출입의 경우 '10년 1~4월 IT산업 수출은 471.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6% 증가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수출감소폭 △27.4%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IT산업 무역수지는 242.2억 달러로 역대 1~4월 최고치이다. 분기별 IT산업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하였다.

품목별로는, 1~4월 반도체 수출은 148.8억 달러,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은 104.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3.8%, 56.4% 증가하였고, 휴대폰 수출은 77.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2% 감소하였다.

휴대폰 수출은 지난 '08년 33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09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단가 하락 및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에 기인한다. 수출단가 하락은 휴대폰 업체간 가격경쟁 심화, 보급형 중저가폰 라인업 강화 등에 기인한다.

휴대폰 수출물가지수(달러화 기준, 2005=100)는 ('08) 50.1 → ('10.1Q) 32.9이다. 휴대폰 가격경쟁력 확보 및 현지화를 위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 확대되었다. 휴대폰 해외 출하 비중은 ('08) 46.1% → ('09) 58.3% → ('10.1Q) 60.8%이다.

'10년 1/4분기 휴대폰 전세계 출하량은 삼성전자 6,430만대, LG전자 2,71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0.4%, 19.9% 증가하였다.

휴대폰 세계 1위 업체인 노키아는 1억780만대를 출하하여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니에릭슨은 1,050만대, 모토로라는 850만대를 출하하여 전년동기 대비 각각 △27.6%, △42.2% 감소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금년중 삼성전자 40여종, LG전자는 20여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으로,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대폭 강화되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10년 1/4분기 메모리반도체와 LCD패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47.0%, 47.5%로 세계 1위, 휴대폰은 31.5%로 세계 2위를 유지하였다.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메모리는 ('07.1Q) 42.8 → ('08.1Q) 43.8 → ('09.1Q) 42.7 → ('10.1Q) 47.0이고, LCD패널은 ('07.1Q) 44.7 → ('08.1Q) 43.1 → ('09.1Q) 54.7 → ('10.1Q) 50.3이며, 휴대폰은 ('07.1Q) 20.5 → ('08.1Q) 24.9 → ('09.1Q) 28.0 → ('10.1Q) 31.5이다.

메모리반도체와 LCD패널은 세계 1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은 '07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LCD패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양강 체제를 유지하며 3위 업체(대만 AUO社)와

【 지난 10년간 휴대폰 수출 및 증가율 】

(단위 : 억 달러,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9. 1~4월	'10. 1~4월
수출 (증감)	61	79 (30.6)	114 (43.1)	160 (40.9)	228 (42.3)	247 (8.7)	245 (△0.9)	281 (14.6)	334 (19.1)	287 (△14.3)	93.9 (△15.9)	77.7 (△17.3)

의 큰 격차를 두고 있다. LCD패널매출('10.1Q, 억불)은 (삼성)51.7, (LG)50.3, (AUO)32.9, (CMO)28.3, (Sharp)16.8이다.

최근 월드컵 특수와 함께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부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반도체 및 LCD패널은 사상 최고의 활황을 보인다. 이러한 활황은 부품 및 장비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유발중이다.

'10년 1/4분기 주요 기업 실적에서도 '10년 1/4분기 국내 주요 IT기업은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34조6,400억원, 영업이익 4조4,100억원을 달성하여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나타내었다. LG전자는 매출액 13조7,000억원, 영업이익 5,300억원을 달성하여 전통적 비수기인 1/4분기중 역대 최대 매출액이다.

LG디스플레이는 매출액 5조8,800억원, 영업이익 7,890억원을 달성하여 4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고, 하이닉스는 매출액 2조6,800억원, 영업이익 7,470억

원을 달성하여, 영업이익률 28% 및 3분기 연속 흑자인 것이다.

'10년 IT산업 전망에서 1/4분기 IT산업 실적 호조에 따라 금년도 IT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14.0%, 기기 생산은 9.7% 증가할 전망으로 수정(기존 전망 : 수출 10.0%, 기기 생산 7.7% 증가)되었다.

수출은 對중국 19.2%, 對미국 12.2%, 對EU 9.9%, 對일본 9.8% 증가하고, 생산은 반도체 15.2%, 디스플레이 15.0%, 휴대폰 11.3%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4월 실시한 통계청의 기계수주동향조사에서 '09년 4/4분기와 '10년 1/4분기의 기타특수산업 기계의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8.0%, 30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차세대 생산라인을 선제 구축하기 위한 IT장비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특수산업기계의 조사 항목 6개중 5개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나머지 조사부분은 플라스틱사출 성형)이다.

【 기업사례 】

분야	업체	주요 실적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케이씨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매출 525억원(전년동기 158% 성장), 영업이익 56억원(전년동기 265% 성장) •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조로 관련 장비시장 실적 호조 • 디스플레이장비에서 고부가가치 반도체장비·소재 등 관련분야로 사업을 다각화 하며 국내외 주요 반도체기업을 고객으로 시장점유율 상승중('09년말 Ceria Slurry 국내 MS 20%) • CMP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2개사만이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국내 고객사의 국산화 의지, 투자 확대, 전략적 영업조직 활용 등으로 실적 호조 • LCD장비는 '09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고객사의 신규라인증설 투자 재개 및 기존 라인의 보완투자 병행으로 실적 호조 • 2분기는 국내 LCD 업체들의 8세대 증설, BOE(중국) 8세대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반도체용 세정장비와 CMP 장비의 호조 지속 전망
	유진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매출 302억원(전년동기 1392.5% 성장), 영업이익 57억원(전년동기 흑자전환) • 2010년 상반기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장비업체들의 실적 호조 • 설비투자 대부분이 미세공정 전환으로 집행되면서 유진테크의 LP-CVD와 Plasma 장비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1분기 당초 334억원 장비수주 기록하며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주 지속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 달성 • 주요 메모리업체들의 CVD 장비발주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하반기 신규라인 증설, 차세대 공정 전환이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되어 2~3분기 실적 역시 사상 최대 기록 전망

LED	서울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매출 1245억원, 영업이익 132억원달성,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356%성장 • 경기회복에 따른 글로벌 TV수요 증가로 LED TV용 LED를 포함한 BLU용 매출이 55% 증가 • 자회사 서울옵토디바이스의 1분기 흑자전환으로 미국 크리, 일본 도요타고세이에 크게 의존해왔던 LED 칩의 자회사공급이 가능할 전망
	엠케이라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대형 유통설비회사와 5만개 규모의 LED조명 공급계약 체결, 기존 제품대비 무게를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안정기 교체없이 사용가능한 안정기 호환형 제품출시로 올해 30만개 수출 전망
	네패스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XP반도체 태국 후공정 패키지 라인에 100만달러 규모의 LED조명 공급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에도 공급계약 활발히 추진중
	아토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용 LED 조명 솔루션 공급으로 일본, 유럽 등 해외비중이 50% 이상
모바일 보안카메라	이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5월까지 스피드돔 보안카메라 매출 60억원, 지난해 총 매출 14억원의 4배 상회 • 해외 20여개국 고객사, 브라질, 이란 등 신흥지역 주요 유통 사업자들의 대규모 공급물량 등으로 급성장 하고 있음 • 중국·대만의 저가 제품 공세속에서 독자적인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 고수, 제품력에 기반한 마케팅 노력으로 유럽과 북미 보안 카메라 시장에서 큰 성과
셋톱박스	가온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PVR(개인영상저장장치, Personal Video Recorder) 매출 호조와 중대형 방송사업자와의 거래 확대에 힘입어 올 1분기 매출 444억원, 영업이익 25억 기록 • 남아공월드컵으로 셋톱박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2009)에 이어 올 2월 이탈리아 방송사업자 유로파 7과 95억원 규모의 DVB-T2(2세대 디지털 지상파방송 표준) HD 셋톱박스 공급계약 체결로 시장 다변화 및 유럽 방송사업자 시장 선점의 계기 마련 • 중대형 방송사업자로 고객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케이블 사업자 중심에서 지상파, 위성, 통신사업자 등으로 저변 확대 • 매출 50억원 이상 중대형 거래처 지난해 3개에서 올해 14개로 크게 확대
통신관련 시험정비 및 계측기기	이노와이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실적 전년동기 대비 46% 매출 증가, 영업이익 150%, 당기순익 700% 증가 • 경기침체로 위축되었던 글로벌 통신시장의 투자수요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미국, 일본 등 수출 실적 증가 • 하반기 4G 시장의 투자 확대 및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WIMAX 및 LTE 시장에 의한 4G 관련 시험정비와 계측장비의 수익 상승 기대
터치스크린	디지텍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매출 433억원, 전년동기대비 126% 매출 증가(영업이익 92.8%, 당기순익 69.3% 증가) • 휴대폰 터치스크린 부문이 매출 성장세 주도, 게임기 및 내비게이션용 터치 제품이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 • 터치스크린의 핵심 소재를 점차 내재화하고 있고, 공정개선을 통한 수출향상 노력으로 고성장세 지속 전망

